칼 럼

장 기 채 주 필

노인복지 확충해야 노인빈곤 막는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관심 속에 태어났던 한 고귀한 생명이 노년기에 와서는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한 채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길어지는 노년…'할줌마' '할저씨'들의 삶이 고단해진다. 죄악 중에서 가장 악하고, 범죄 중에서 가장 독한 것이 빈곤이라 하지 않았던가.

지구촌 최악의 노인빈곤·노인불행·노인자살 일등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 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세계 최악의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모두가 빈곤으로 가는 길이 유일한 미래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들 중 잘사는 경제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OECD국가들 중 경제 순위로 보면 10위권 내에 들어간다. 전 세계 인구 중 25%정도가 식량난과 식수난을 겪고 있다는 지표를 보더라도 먹을 걱정과 마실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100만원을 호가가는 스마트폰이 넘쳐나는 사회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노인빈곤이 우리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률이 4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12.6%보다 무려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논하는 시점에서 나온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다. 현재의 노인층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일군 세대다.

또한 높은 교육열로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바쳐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주었다. 그러고도 대한민국 부모들의 자식사랑은 종교적 맹신에 가깝다.

자식 한 사람을 대학졸업까지 시키는데 드는 양육비가 대략 2억 7000여만 원이 든다는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 교육열을 그저 칭송하기에는 마뜩치 않다고 봐야 한다.

바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노후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캥거루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성인이 된 자녀의 경제적 뒷바라지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노후대비는 뒷전이 되었고 정작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의 무관심과 노인복지의 미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슬프게도 우리나라 노인자살률 또한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는 노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반증한다.

예컨대 우리의 부모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공교육비 사교육비로 지출해 고학력 자식 만들어 놓고 정작 부모들 스스로는 별 노후대책 없이 엉겁결에 노년을 살아야 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빈곤율은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만 유독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가족 간 유대를 중시하는 정통 가치관이 무너져 자식에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노인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다.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도 노인이 한집안의 기둥이자 가장으로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다.

1884년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이땅을 밟은 호러스 알렌은 경로효친의 전통에 감탄하며 '조선은 노인들의 천국'이라 표현했다.

또 세계적 석학 아널드 토인비는 한국의 효(孝)사상과 경로사상을 '온 인류의 으뜸가는 사상'이라 말했다.

그런데 9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2014세계 복지지표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50위, 소득보장 80위, 건강상태 42위, 역량 19위, 우호적 환경에서는 54위라고 한다. 전체 1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스웨덴과 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은 8위 일본은 9위에 각각 올랐다. 이 자료에서는 역시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영역은 '소득보장'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률을 말하는 '소득보장' 부분이 96개국 중 80위로 노인이 가난한 나라다.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라는 현실이 몹시 부끄럽다. 게다가 노인이 가해자가 되는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노인빈곤의 명암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노인들을 돌보지 않는 사회구조와 열악한 환경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제 노인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의 범주를 넘어 국가적인 책무가 되었다.

토인비가 부러워한 우리의 정신문화를 되살려야 한다. 노인이 가난한 나라에서 노인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한다.

社 說

민간 동물보호소 관리해야

반려동물의 증가와 더불어 유기동물 관리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정부의 조직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명 동물보호단체인 '케어'의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이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관련 당국에 따르면 정부에서 현재 반려동물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산하 동물복지정책팀이다.

지난해 6월 농식품부 직제 개편을 통해 신설된 곳이다.

이 팀에 속한 공무원은 과장급 팀장 포함 총 6명이다. 민간에서 파견된 직원 3명을 합해도 10명에 못 미친다.

반면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2015년 457만 가구에서 2017년 539만 가구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조직 확대뿐 아니라 관련 제도 정비도 시급한 문제다.

이번에 안락사 문제가 터진 동물보호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곳으로, 각종 규제와 법률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당장 민간단체가 벌인 유기동물 안락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반인이나 사설 보호소가 안락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현재 없으나 사설 보호소가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되지 않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하므로 무척 조심스럽고 어려운게 사실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지정한 동물보호센터는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 즉 안락사시킬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사설 보호소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영업 규제 개선 방안을 만들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景	볕	경	景 行 維 賢
行	다닐	행	▷뜻: 행실(行實)을 훌륭하게 하고 당당(堂堂)하게 행(行)하면 어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함.
維	벼리	유	
賢	어질	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식당 등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

나주소방서는 겨울철 부주의로 주방에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중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30%가량이 식용유로 인해 발생며 기름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커질수 있기 때문에 주방화재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를 이용해야 한다.

주방화재용 소화기란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잘 안꺼진다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서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K급 소화기는 산소를 차단하고 질식소화와 더불어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냉각소화에 적합한 강화액 약제를 사용해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재발화를 차단한다.

주방화재용 소화기 설치 대상은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이며 2017 년 4 월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2017 년 6 월 12 일부터 영업하는 영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소급적용은 하지 않지만 기존 영업장에도 K 급 소화기 비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안전한 겨울철을 보내기 위한 첫걸음 음식물을 요리하는 주방 및 식당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에 발생시 신속히 대응도록 하자.

이선호 / 나주소방서 소방장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222-5547
팩스 (062)222-5548
광고국 (062)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